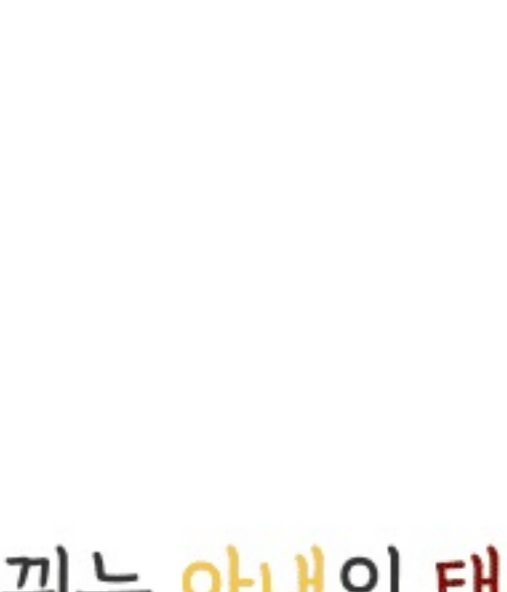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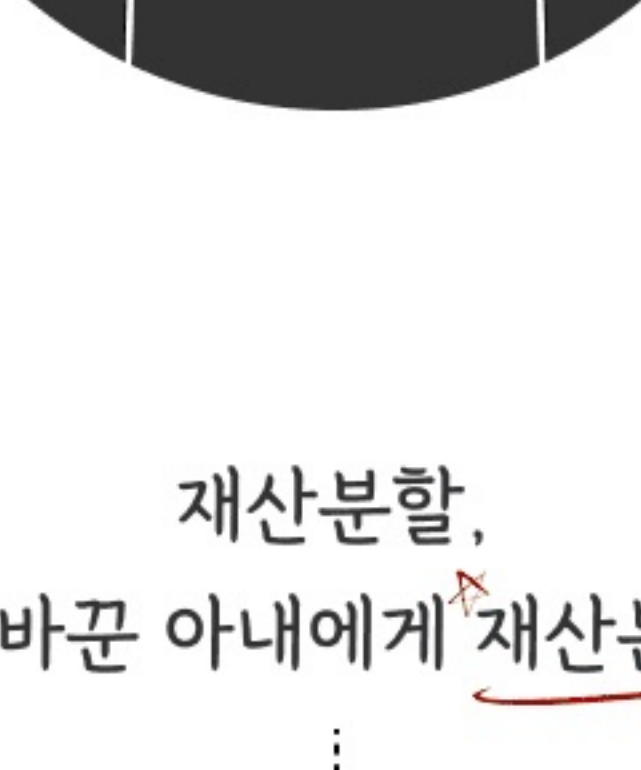
소송기간 2022년 07월 ~ 2023년 06월 (11개월)



## 재산분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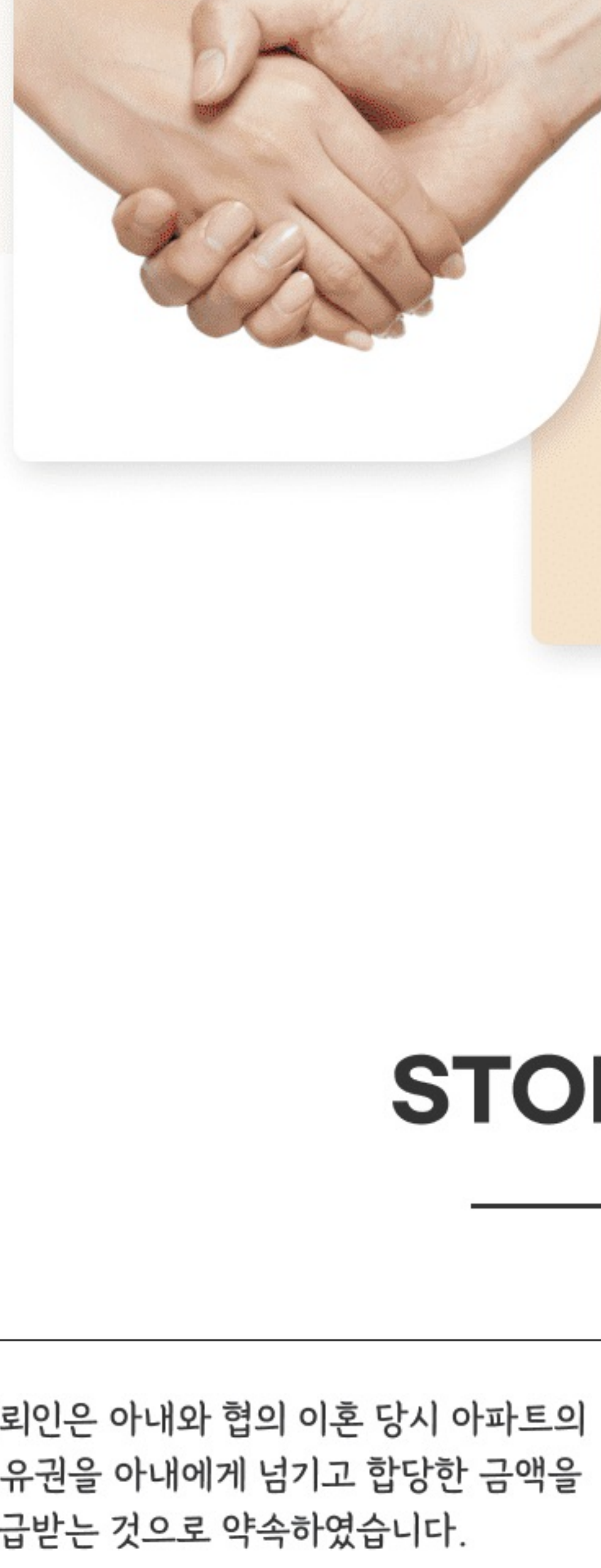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지역 : 논산  
결혼기간 : 16년  
미성년자녀 수 : 3명  
관할법원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태도를 바꾼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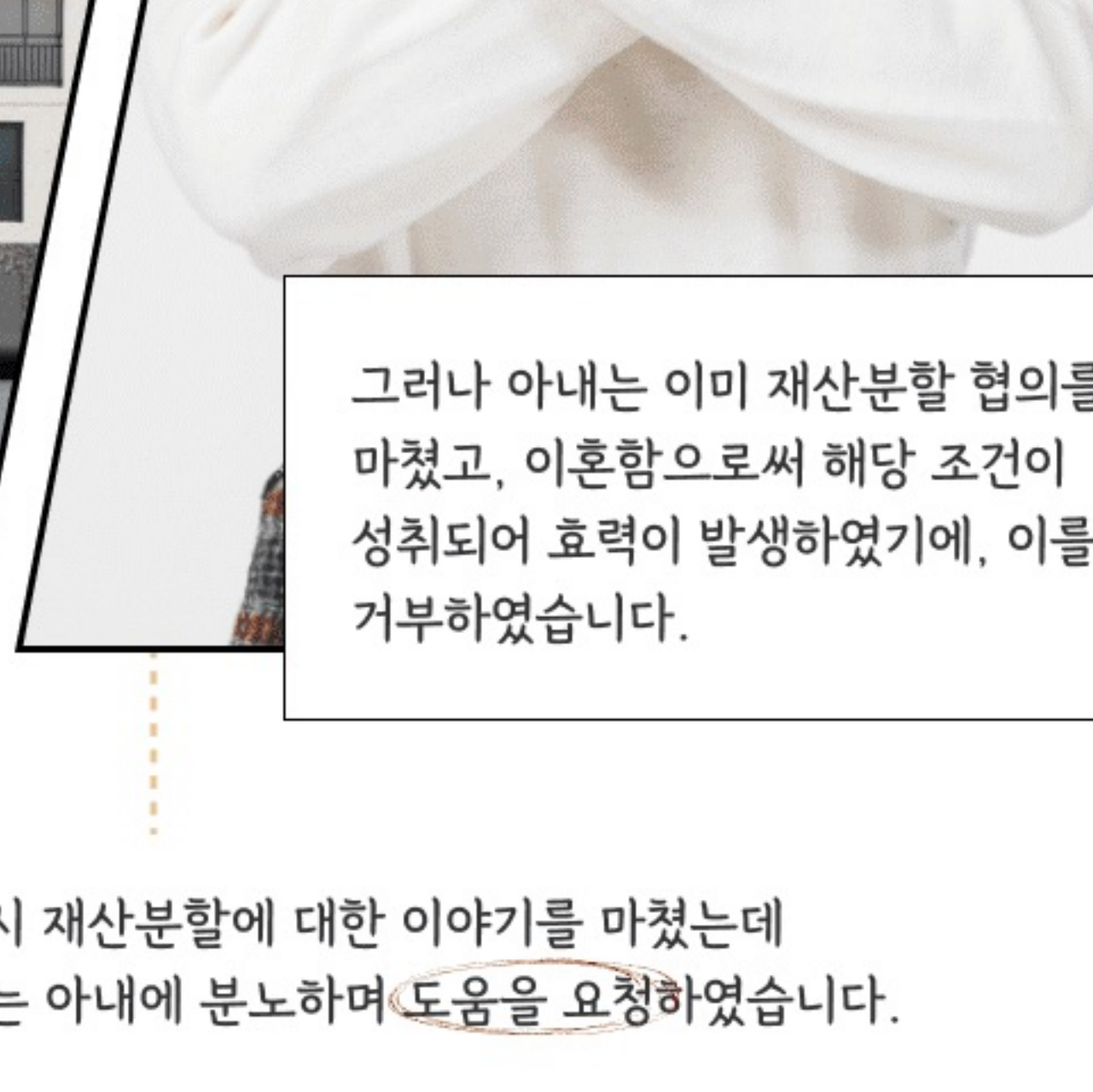
### 청구 사유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분노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 STORY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 당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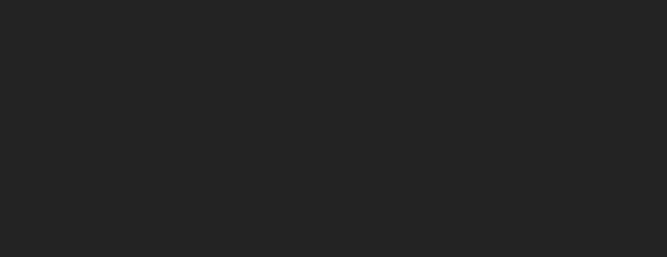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겨주었고, 이혼 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고, 이혼함으로써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혼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아내에 분노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PROCESS



법무법인대세 방문 · 상담



전담팀 배정



소송제기

### 사건수임

01

의뢰인은 아내와의 약속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며, 협의이혼 이후 말을 바꾸는 아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사건검토

02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이 끝나고 의뢰인이 돈을 요구하자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고 이혼을 하였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소송제기

03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소송 전담팀은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아내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있고, 의뢰인이 소유권을 넘긴 이후에도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며, 15년이 넘는 혼인관계에서 재산분할금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아무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04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SULT



### 재산분할 5,000만 원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50,000,000 원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이혼 소송 전담팀은 협의 이혼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났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아내의 주장을 반박한 뒤,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KEY POINT

**협의이혼**은 제삼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동의 및 협의만으로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른 이혼 절차에 비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협의이혼은 결과에 확정력이 없어** 그만큼 대가가 따릅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 시 협의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를 추가로 다시 진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